____월 ____일

다음은 기사의 일부분입니다. 소리 내어 기사를 읽고 또박또박 베껴 써 보세요.

셰익스피어의 '햄릿' 중 'To be, or not to be'는 흔히 '사느냐, 죽느냐'로 번역된다. 그밖에 다양한 번역이 나와 있다.

한국 영문학계의 첫 세대에 속한 최재서는 '살아 부지할 것인가, 죽어 없어질 것인가'라며 유장하게 옮겼다. 이밖에 '삶이냐, 죽음이냐' 또는 '있음이냐, 없음이냐'라며 존재론적 고민을 더 강조한 번역도 있다.

가장 최근에 번역본을 낸 설준규 한신대 영문과 명예교수는 꽤 색다르게 옮겨서 눈길을 끌었다. 그는 '이대로냐, 아니냐'로 옮겼다. 그는 "삶과 죽음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,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싸워서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라는 삶의 방식에 관한 것"이라고 설명했다. (생략)

– 조선일보 2018년 2월 1일





이 기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? 알맞은 제목을 써 보세요.

정답은 100쪽에 있습니다.



오늘 읽은 신문 기사 중 마음에 드는 문장을 써 보세요.